

국가교육위원회 제57차 회의록

1. 회의개요

- ① 일 시 : 2025년 7월 18일 (금) 13:30 ~ 17:52
- ② 장 소 : 정부서울청사 본관 4층 국가교육위원회 회의실(413호)
- ③ 출석위원 : (위원장) 이배용
(상임위원) 김태준, 정대화
(위원) 강은희, 강혜련, 김 건, 손덕제, 양오봉,
연취현, 유민봉, 윤건영, 이민지, 이승재,
장석웅, 장신호, 전은영
(총 16인)

2. 회의내용

① 성원보고

- 재적위원 20인 중 16인 출석 예정으로 성원

② 국민의례 및 개회선언

③ 안전 등 공개 여부 결정

- (심의·의결안전) 「학교보건법 시행령」 등에 관한 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 통보(안) 비공개 심의 후 의결시 입법예고에 맞춰 공개
- (보고안전)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추진 경과 및 주요사항 보고(초등 1, 2학년 신체활동 교과 신설 및 즐거운 생활 개편 관련)' 공개
- (보고안전) '제2기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분야별 보고(2차)' 비공개

4] 주요 내용

가. (심의·의결안건) 「학교보건법 시행령」 등에 관한 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 통보(안)

- (○○○ 위원) 안건에 앞서서 회의록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음. 국회에서 요청이 오면 기명 회의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기명 회의록이 언론에 보도된 일이 발생했음. 저희 위원회에서 의원실에 국회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의원실을 통해서 다른 데로 나갔을 경우 위원회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함.
- (사무처장) 의원실에 법령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 차원에서 별도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음.
- (○○○ 위원) 그렇게 되면 무기명 회의록을 유지하는 것이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생각함. 최소한 위원회 차원에서 의원실에 항의를 하거나 유감을 표하는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봄.
- (○○○ 위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지?
- (○○○ 위원) 의원실과 언론기관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의원실은 그것을 의정활동의 일환이라고 할 것임. 우리가 회의록을 국회에 드릴 때 ‘의원님만 보시고 나머지는 보시면 안 됩니다.’하고 드리는 것은 아님. 회의록과 관련해서는 국회와 우리 사이에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고, 국회는 원래 회의록 실명 기재를 요청했음. 우리가 실명 기재를 거절했고, 논의 과정에서 익명 기재를 유지하되 국회에 제출하는 것에 한해서 실명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작년에 최종 합의가 되었음. 우리가 실명 회의록을 국회에 보내면 그것을 어떻게 할지의 문제는 국회에서 처리할 문제이지 우리가 ‘항의를 한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봄.
- (○○○ 위원) 어폐가 있는 말씀이신 것 같음. 속기록 공개 여부는 해를 넘기면서 논의를 많이 해 왔음. 실명 공개에 부정적이었던 것은 언론에 기삿거리로 이용되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문제이지 다른 것이 아님. 우리는 장시간 회의를 하면서 많은 발언을 함. 그런 것을 의식해서 우리가 스스로 규제하고 발언을 하지 않는 자세를 갖게 된다면 회의가 진솔하게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임. 그래서 우리가 열띠게 토론을 했고, 여러 방안들이 논의 되었음. 저는 위원님 말씀 전까지는 이 사실을 몰랐음. 국회 교육상임위 등에서 정식 논의 과정 상의 필요 때문에 얘기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보좌진에 의해서 언론에 임의로 자료를 제공하고 기사를 권유하는 방식이 진행된다면 국가 교육위원회의 위신과 저희의 역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음.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음. 국회의원이 가져가면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음.

- (○○○ 위원) 저는 위원님 말씀을 이해함.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임.
- (○○○ 위원) 우리가 국회의원님들께 실명 회의록을 제공했을 때 실명으로 나가니 바깥에는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은 드렸다고 봄. 어느 기사에서 직접적으로 사용된 것은 사실임. 국회의원의 권한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는 없지만, 자꾸 실명으로 나가면... 의원님까지 아시는지는 잘 모르겠음. 의원님 측의 의도대로만 쓰는 것도 아니고,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다고 생각함. 바깥으로 나가지는 않게 의원님들만 열람하시라는 것을 부탁드렸다고 생각함. 이번 사안은 위원님은 나름대로 문제제기를 하신 것이고, 이것을 여기에서 갑론을박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조금 더 협조적으로 해서, 우리가 제공할 때 어떻게 보호해 주실지, 우리는 어떻게 성실하게 제공을 해 드릴지 등 원활하게 소통관계를 가지도록 하겠음. 어떤 의원님이 일부러 그렇게까지 하시지는 않았다고 생각함. 이 정도로 우리가 알았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음.

- (간사) 심의·의결안건인 학교보건법 시행령 등에 관한 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 통보(안)을 교육과정정책과장이 보고드리겠음.

⇒ 이후 관련 보고 및 심의(비공개)

- (교육과정정책과장) 학교보건법 시행령 등에 관한 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 통보(안) 보고드림.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에 교육과정의 법정 교육을 반영하는 법령 제·개정을 추진할 경우 국교위와 사전협의 하도록 하고 있음. 「학교보건법」에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에 대한 개정이 있었고, 이에 따른 후속법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교육부가 국교위에 사전협의를 요청해 왔음. 이를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가 검토하고 오늘 그 내용을 보고드림. 관련 절차는 표로 정리하여 제시해 드렸음.

- 교육부는 지난 5월 「학교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보내왔고, 교육감협의체 의견을 붙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의견을 반영하여 보내왔음. 이에 대해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가 검토한 내용은 수정 필요사항 두 건과 기타 의견으로 정리되었음. 전문위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부에 통보할 案을 작성하고 오늘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보고드림. 교육부의 사전협의 요청안 중 시행령에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 수립 시기는 학교가 새 학년도 학교교육계획을 안정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매 학년도 시작 전’에서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로 수정하고, 학교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탄력적 편성·운영이 가능하도록 시행규칙에 ‘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라는 부분을 ‘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등과 연계하여’로 조문을 수정할 것을 통보하고자 함. 기타 법정 의무교육의 증가에 대한 우려와 함께 법정 의무교육 관련 교육과정 지원체계 등에 대해서도 제도적 개선 검토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하고자 함. 이상과 같이 의결해 주시면 이를 교육부에 통보하고 교육부에서는 이 내용을 입법예고하는 법령안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음. 참고자료로 교육부의 사전협의 요

청사항, 시·도교육감협의회 의견,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의 검토 결과 보고서를 함께 드렸음.

- (○○○ 위원) 사실 이 자리에 교육부 차관님이 오셔야 함. 다만 이번에 새로 임명되신 차관님이 아직 임명 초기라 시간 내기가 어려우셨던 것 같음. 혹시 이 사안에 대해서 두 분 교육감은 다른 의견 있으신지?
- (○○○ 위원) 협의체에서 공식적으로 의견 제출을 다 했음.
- (○○○ 위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지?
- (○○○ 위원) 저도 이 안전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없음.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의무 예방교육들이 개별법에 많이 생기고 있음. 사회가 전문화·다원화 되면서 관련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임. 그렇지만 교육의 효과성과 실천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의무교육들을 가능한 모듈로 묶어서 학생들한테 압축적으로 전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음. 학교나 교원 입장에서 이와 같은 의무교육이 계속 추가되면 교육과정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함으로써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함. 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권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 위원) 위원님 의견과 같은 취지임. 저희 아이들도 일주일에 두 번 있는 체육활동 시간 중 한 시간을 대부분 의무교육으로 쓴다고 얘기함. 그래서 기타 의견도 들어간 것 같음. 장기적으로는 의무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통합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아이들 입장에서는 창체 시간이 그나마 교과과정 이외에 조금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임. 그 시간이 또 교육을 받는 시간이 된다면 이 교육에 효율성이 있을지 장기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 위원) 실제로 학교에서는 지금 의무교육이 너무 많아서 기말고사를 치르고 나면 ‘교육과정 자율화 주간’, ‘꿈끼 탐색주간’ 등으로 정해서 의무이수 교육들을 몰아서 하는 경우가 많음.

기말고사 이후 방학 전에 조금씩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적으로 모델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음. ‘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등’이라고 한 것은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상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함인 것 같음. ‘교과’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의무교육들이 다 들어가고 나면 학교에서 수업할 시간이 다 빠지게 됨. 그래서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들어가고 교과 시수로 잡으면서 의무교육을 한 것으로 인정해 주자고 했기 때문임. 따라서 교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비어 있는 기간에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교육부에서도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음.

- (○○○ 위원) 지금 수업하시는지?
- (○○○ 위원) 지금은 교감이라 수업은 하지 않고 있음.
- (○○○ 위원) ‘등’자를 붙여서 유연하게 하자는 것은 좋은 것 같음. 그런데 선생님들은 행정업무 부담이 있었음. 이것을 교과나 창체에서 다룬다는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업무를 위에서 내리니까 제대로 업무를 하기가 어렵고 복잡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들었음. 현실은 어느 정도인지,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을 어떻게 덜어드릴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음.
- (○○○ 위원) 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주된 업무임. 그런데 외적·부수적 업무들이 많음. 학부모 관리, CCTV 관리, 그린스마트학교를 하면서 수전이나 전기선이 있는지 확인 등임. 쉬는 시간 10분에도 거의 일을 하시고, 점심시간에도 업무를 보시지 않으면 바로 퇴근이 힘들 정도로 행정업무가 과도함. 이것은 여러 교원단체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임.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임. 행정 업무 지원 인원이 충원되든지 행정실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든지 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음.
- (○○○ 위원) 대학은 활동 영역이 넓기는 하지만, 행정처나 사무처가 있고 인원이 꽤 많음. 초·중·고의 경우에도 행정 영역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안인지?

- (○○○ 위원) 확대라기 보다는 가르치는 일 외의 업무들이 선생님들에게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임.
- (○○○ 위원) 선생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대신해야 하는 것 아닌지?
- (○○○ 위원) 그래서 행정업무 전담팀을 만드는 등 나름대로의 자구 노력을 하고 있음. CCTV가 몇 화소인지를 선생님이 하고 계심. 소소한 영역들이 많아서 교감선생님들도 업무가 많은데 선생님들은 수업까지 하셔야 하는 상황임.
- (○○○ 위원) 최근 마약과 관련해서는 연령대가 점점 내려오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교육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맞음. 그렇지만 의무교육이 교과나 창체로 들어오면 그 본연의 영역이 훼손될 수가 있다고 생각함. 대학교수님들도 매년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는데 사이버캠퍼스에서 동영상으로 수강하도록 하고 있음. 마약중독 예방은 학교 밖 생활권에 관한 얘기라서 학부모도 같이 봐야 아이들의 예방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함. 그래서 방학 때 동영상으로 부모와 같이 보면서 할 수 있도록 개발하면 어떨까 함. 다원화 시대에 다양한 의무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될 텐데 그때마다 교과나 창체로 들어가는 것은 학교교육을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함.
- (○○○ 위원) 생태, 마약, 도박, 성교육 등 필요하다 싶으면 산발적으로 의무교육으로 들어가는 방식이 되다 보니까 학교에서 힘들어하신다는 말씀에 공감함. 숨어 있는 일이 많다 보니 행정인력도 필요해 보임. 그런데 단순 행정 업무도 있지만 교육과정을 알아야 하는 행정업무들이 또 있음.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교원 숫자를 줄이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이렇게 줄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봄. 생태, 마약, 보건 교육 등 학교에서 해야 되는 교육들은 발달 단계에 맞게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정교사가 학교에 남아서 교육 관련 업무를 할 수도 있고 이

러한 교육들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임.

- (○○○ 위원) 의결을 하려면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보완에 대한 의견은 있지만 의결 자체에 반대하는 분은 없으신 것 맞는지?

⇒ (「예」하는 이 많음)

- (○○○ 위원) 이것에 대한 보완이 주문에 들어가 있음. 별도의 교육으로 들어가지 않고 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등과 연계해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할 것, 그 다음해 교육과정에 편성될 수 있도록 12월 말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 등임.

- (○○○ 위원) 그럼 주신 의견은 추후 반영할 수 있을 때 하도록 하고, 이것 자체에 대한 수정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함. “국가교육위원회 의결. 안전번호 제2025-04호. 안전명 ‘학교보건법 시행령 등에 관한 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 통보(안)’. 의결 연월일 2025년 7월 18일. 주문, 학교보건법 시행령 등에 관한 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 통보(안)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동의하시는지?

⇒ (「예」하는 이 많음)

그러면 다수 위원님들의 동의에 따라 원안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음.

(의 사 봉 3 타)

나. (보고안전)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추진 경과 및 주요사항 보고 (초등 1, 2학년 신체활동 교과 신설 및 즐거운 생활 개편 관련)

- (간사) 보고안전인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추진경과 및 주요사항(초등 1, 2학년 신체활동 교과 신설 및 즐거운 생활 개편 관련)을 교육과정정책과장이 보고드리겠음.

- (교육과정정책과장) 국교위는 초등학교 1, 2학년 신체활동 교과 신설과 즐거운 생활 개편을 추진하기로 지난 24년 4월 제29차 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추진계획을 24년 7월 제 32차 회의에서 의결하였음. 수립·변경 계획을 보시면 2단계로 연구를 수행하여 국가교육과정 개정안을 개발하고 고시하기로 하였음. 수립·변경 계획에 따라 1차 연구인 재구조화 방향 설정 연구를 작년 하반기부터 진행하였음. 계획 단계에서 보고드렸던 대로 연구에서부터 학교현장, 전문가 등의 의견과 제언을 충실히 듣고 연구결과가 도출되도록 진행하였음. 특히 공개토론회, 2,000명 이상이 참여한 현장설문 등을 실시했음. 주요 결과 내용은 30쪽에 넣어드렸음. 이후 자문의견수렴도 수차례 실시했고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1기와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2기도 참여하였음. 이렇게 마련된 재구조화 방향과 총론 주요사항 설정에 대해 내용을 정리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 2기의 사전검토, 모니터링단 3기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보고드림. 전문위의 의견과 모니터링단의 의견도 각각 31쪽, 33쪽에 드렸음.
- 주요내용임. 현행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은 통합교과 중 하나이고, 학생의 삶과 경험을 기반으로 주제 중심 수업을 강조하고 있음. 재구조화 방향은 초등 저학년 학생 발달 수준에 적합한 보다 강화된 신체활동 경험 제공, 건강·안전 관련 기초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신체활동 경험 중심의 통합교과를 신설하는 것, 기존 즐거운 생활에서 음악·미술 관련 교육활동을 강화하여 교육과정의 목표와 성취기준 등을 재구조화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설정하고자 함. 신체활동 경험 중심 교과로 '건강한 생활'을 신설하고 초등·특수교육과정 총론에 144차시로 설정할 예정임.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에서는 120차시로 설정하는 案임. 예술 경험 중심 교과로 즐거운 생활을 기존 명칭을 유지하여 256차시로 설정하고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에서는 200차시로 설정할 예정임. 기타 고려사항임. 정책연구, 전문위, 모니터링단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한 내용들임. 교과서 개선, 신체활동 내실화를 위한 교

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적극적인 학교 지원이 필요하며 교과 전달 교사 배치, 공간과 시설의 확보, 관련 연구학교 운영, 교원연수 등의 지원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것임. 향후 2차 연구, 시안개발 연구를 추진하면서 관련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음.

- (○○○ 위원)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지? 이것은 진행해 가는 과정을 보고하는 것임. 지난번에 우리가 요청했던 대로 앞으로 교육부가 여러가지 개선과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내실 있는 성과가 있을 것임.
- (○○○ 위원) 교육부에서 오신 분 계신지?
- (○○○ 위원) 오시지 않았음.
- (○○○ 위원) 지난번에 여러 이유로 교사 등의 반대 비율이 높았음. 장소, 체육강사 등 보완이 필요한 많은 부분이 있었고 개선 요청 의견이 있었는데 진행 상황을 공유받지 못 하는지?
- (교육과정정책과장) 제32차 회의에서 계획을 의결하실 당시 교육부 차관님 발언 내용이 회의록에 남아있음. 교육과정이 구체화되면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교육부에서도 제시할 것인데 이때 고시되는 시점에 맞춰서 여러가지를 발굴해서 보고를 드리겠다는 내용임. 교육부도 실무 부서들에서 이것을 인지하고 있고, 오늘 보고가 되면 이 내용을 다같이 공유해서 전달하겠음.
- (○○○ 위원) 이 문제는 저희 위원회에서 치열하게 논의되었음. 즐거운 생활에서 체육 분야를 분리하는 것이 적합한가, 아이들 발달 단계에 맞는 것인가 등에 대한 논의였음. 전문위원회는 명확하게 동의하지 않았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봄. 어쨌든 치열한 논의를 거쳐 분리하는 것에 대해 의결을 했음. 오늘 자료 '정책연구 주요경과'에 보면 대국민 공개토론회, 현장 설문 등을 했다고 함. 그런데 그 내용이 교과명으로 무엇이 적합한가에 대한 것임. 과목을 분리하기로 했으면 그에 따른 여러 문제점, 긍정적인 측면, 보완해야 될 점 등이 있다고 생각함. 그

렇다면 토론회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이 제시되고, 이를 바탕으로 시행할 때 그것을 보완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교과 명칭에 대한 것으로만 한정되어 있어서 아쉬움. 교과 분리 부분에 대해 의견이 모아진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정책과장) 정책연구가 방대한 분량으로 정리되어 있고 현재 운문 마무리 단계에 있음. 말씀해 주신 대로 '정책연구 주요경과'에 내용이 담겨 있음. 정책연구진이 대국민 유튜브 토론회를 장시간 진행했고, 공개 댓글 등으로 여러 분들이 참여하셨습니다. 거의 200명 가까이 참여하여 토론이 이루어졌고, 통합교과 영역을 전반으로 보시는 분들, 체육·음악·미술 전문가, 유아, 특수교육 전문가 등이 참여하셨습니다. 연구진이 준비한 토론문들이 공개가 되어 같이 논의 되었음. 정책연구 보고서에는 상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워낙 분량이 많아서 직접 다 드리지 못해서 아쉬움. 설문에 있는 교과명 예시, 시수 예시도 연구진이 다양한 전문가들과 토의하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진행한 것입니다.
- (○○○ 위원) 아이들이 가장 즐거워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체육 시간일 것임. 어렸을 때 1년 동안 체육활동을 한 번도 못 한 적이 있음. 담임선생님이 임신을 하셨는데 교과서 안에는 음악·미술·체육이 같이 있으니까 그 중 하나만 가르치면 됐던 것임. 운동을 좋아하던 아이들은 늘 그것에 대한 갈망이 있었는데, 요즘 학생들도 아직도 이것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봤음. 그런 요구가 지금 이렇게 나온 것 같음. 위원님 말씀처럼 준비 과정에서 체육전담교사 배치 등 시수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은 전문위원님들과 잘 협의가 되어서 지금 올라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위험한 소아비만을 예방하고 아이들이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신체활동과 체육활동을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며, 이런 면에서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 위원) 지난 논의에서 초등학교 1, 2학년의 신체활동을

강화하자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확인한 바 있음. 다만, 그 과정에서 음악·미술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저도 여러 의견을 듣고 만나기도 했었는데, 그 점이 미진하게 처리되어 있는 상태임. 신체활동과 음악·미술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통합교과나 하는 문제제기가 아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고, 이렇게 분리된 것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교육부든 국교위든 어떤 형태로든지 점검을 한번 하고 필요하다면 보완적 결정을 하고 나아가는 과정이 필요함. 지난번에는 신체활동을 분리하는 것으로만 가버려서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함. 오늘 본격적으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국교위가 의결했기 때문에 국교위 차원에서 사후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음.

- (○○○ 위원) 다음 회의에는 교육부 차관님도 참석하시리라고 기대함. 오늘 나온 말씀들을 미리 전달해서 그 부분에 대해 교육부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을 듣겠음.
- (○○○ 위원) 첨언임. 어떤 것이 고시가 되고 시행이 되면 세부적인 것들은 그때 가서 보완하고 개선하고 대화하겠다는 방식을 말씀하시는데, 시작 단계에서 이미 노출된 문제점들이 있다면 그 해결방안을 가지고 출발을 해야 현장에서 혼란 없이 빠르고 설득력 있게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그런데 현장은 그냥 둔 채 행정만 나아가면 현장에는 혼란이 있을 것임. 만약 계획 단계에서 보완하기 너무 어려운 점이 한 가지 있다면 시행을 늦추는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음. 행정체계가 먼저 시작해 놓고 나중에 개선하고 고치겠다는 방식에서 탈피하고 현장 설득력이 높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고시 전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소통을 하면 좋겠음. 교육부가 1학년 교사들을 만나봤는지 모르겠음. 그래서 더 현장 친화적인 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회의에 교육부에서 오시면 관련한 내용은 꼭 공유받고 싶다는 말씀도 드림.

- (○○○ 위원) 다소 중복된 내용일 수 있음. 당시 통합 교과목의 취지를 살리겠다는 약속 하에 ‘즐거운 생활’에서 ‘건강한 생활’을 분리시켰음. 따라서 ‘건강한 생활’을 분리하더라도 옛날의 체육이 아니라 통합 교과목의 취지가 어떻게 살려지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야 된다고 생각함. 사실 음악을 들으면서 율동을 하면 음악과 체육이 통합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완전히 분리시키면 그런 것이 가능할까 하는 궁금증이 있음. 어쨌든 통합 교과목의 취지를 살리겠다는 것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함. 또한 당시에 구체적인 질문이 나왔는데 공간과 교사 확보 방안, 구체적인 예산 소요와 시행되는 해의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료를 달라고까지 주문했던 것 같음.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부의 진행상황을 다음번에 보고 받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함.
- (○○○ 위원) 정확한 말씀을 하셨음. 신체활동과 관련한 시설 부분인데, 아이들이 거의 강당에서 신체활동과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데, 고학년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등 강당이 부족한 상황임.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추진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당시에 표명된 바가 있다고 생각함. 말씀하신 대로 시설, 담당교사,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밝혀지면 좋겠음. 또한 이것이 시행된 이후 우리 아이들의 변화와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함.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렸음. 체육을 별도로 분리하고 상대적으로 음악·미술이 줄어든 것임. 음악·미술은 AI 시대에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 등 감수성을 키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임. 이것이 의결되었으니 이후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의 변화에 대한 부분을 엄밀하게 모니터링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면 좋겠음.
- (교육과정정책과장) 사실관계만 한 가지 말씀드리겠음. 현재 초등교육과정에서 즐거운 생활이 400차시임. 400차시 안에서 신체활동의 시수가 교육과정 안에는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데, 교

과서를 제작하면서 144차시 수준으로 제시되어 있음. 그 내용을 교육과정에 반영해서 총론화하는 그런 작업들이 앞으로 진행될 것임. 저희가 시안을 만들게 되면 총론과 각론을 모두 개발하게 되므로 총론에서 초·중등 및 특수 2종, 각론에서 ‘건강한 생활’에 대해 초·중등 및 특수 2종, ‘즐거운 생활’에 대해 초·중등 및 특수 2종 등 총 6종의 교육과정 문서를 개발하는 것이 앞으로 시안 개발 연구 과제로 남아 있음. 말씀 주신 부분들 유념해서 저희가 잘 진행하도록 하겠고, 교육부에도 오늘 말씀 주신 부분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음. 시행 연도는 계획에서 말씀 드렸듯이 올해 연말까지 고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다만 적용연도는 2년 정도 준비기간이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림.

- (○○○ 위원) 이것은 저희가 많이 논의한 주제임. 저학년에 대해서 통합교과를 한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통합교과인지, 정말 어린 아이들을 위한 통합교과인지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음·미·체를 ‘즐거운 생활’로 묶었던 상황임. 음악을 들으면서 율동을 할 수도 있고, 미술 감상을 하면서도 율동은 할 수 있지만, 노래를 부르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만으로 신체가 튼튼해지는 것은 아님. 심리학에서도 음악, 미술, 체육 영역이 인간의 역량에 속하지만 음악·미술이라는 예술성, 감각성과 체육활동이 발현되는 기제는 전혀 다름. 작년에 체육교과 분리의 필요성이 나온 것은 실증연구나 학교 현장을 고려해서 순전히 아이들을 위한 발상이었음. 이것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왜 통합교과군의 기본정신을 위배하느냐 하는 것은 주객이 도치된 것이고 분리에 대한 근본적인 동기가 있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음.
- (○○○ 위원) 오늘 나온 의견도 그 자체를 뒤집는 것은 아니라고 봄. 그때 제안되었던 시설, 예산, 교사 등의 부분은 함께 동의할 바 있음. 또한 체육활동을 보장하는 것과 별도로 음악·미술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것은 기본적인 의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임. 다음번 회의에서 새로운 교육부 차관

님이 참석하시면 이러한 부분을 한번 짚어서 교육부의 탄탄한 정책에 대해 말씀을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따로 없으신지?

(「예」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진행해 가겠습니다. 시안을 잘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고안전) 제2기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분야별 보고 (2차)

- (간사) 마지막으로 보고안전인 제2기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분야별 보고(2차)입니다. 1차와 같이 고대혁, 김경근 공동위원장이 참석해 주셨고, 안전 보고를 위해서 김태훈, 김영철, 양병찬, 류방란 위원님이 함께 참석해 주시겠습니다.

⇒ 이후 관련 논의(비공개)

⑤ 차기 회의 일정 등에 관한 사항

- 제58차 회의는 8월 8일 금요일 14시 개최

⑥ 폐 회